

만 5세 유아의 읽기능력, 어휘력과 개인·환경 변인이 초등학교 1학년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Reading Ability and Vocabulary at Age 5 and Personal Environment Variables of Children on First Grade Reading Comprehension Ability and Vocabulary

이기숙(Ki Sook Lee)¹⁾

김순환(Soon Hwan Kim)²⁾

정종원(Jong Won Jeong)³⁾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the impact of reading ability and vocabulary at age 5, as well as analyzing the impact which children's gender, parental education level and family income level has on reading comprehension ability and vocabulary at the first grade level in primary school. The study also sought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ults obtained in Korea and Japan on this particular research topic. For the Korean part of the study, 328 first grade Korean children, who had participated in the initial testing as five-year olds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longitudinal study were tested; whereas in Japan, 215 students were tested. The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in the case of Korea, reading comprehension ability in the first grade was affected by vocabulary and reading abilities at age 5, gender, as well as the mother's education level, in that order. In Japan, it was affected in the order of vocabulary, gender, and father's education level. In terms of first grade vocabulary, in the case of Korea, it was affected in the order of vocabulary and reading ability at age 5 and father's education level; whereas in Japan, it was affected in the order of vocabulary, gender, and reading ability. In both Korea and Japan, at age 5, vocabulary was shown to have a more significant impact than reading ability on both of language ability and vocabulary in the subsequent primary school period. As such, it can be seen that

¹⁾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²⁾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³⁾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Soon Hwan Kim,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ksh6220@ewha.ac.kr

more interest should be shown not only in the ability to read at age 5 but also in expanding the vocabulary of children at this age through appropriate interaction and support.

Key Words : 읽기(reading), 읽기이해능력(reading comprehension), 어휘력(vocabulary).

I. 서론

언어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해주는 고유의 특징이다(김형엽 · 이형구 · 김현진, 2002). 그 중에서도 언어의 하위 영역 중 읽기는 인간이 외부세계에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며 주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읽기이해능력을 획득하고 발달시키는 것은 교육적 관점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목표로 다루어지게 된다. 유아교육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며 특히 유아기는 읽기이해능력이 본격적인 발달을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 읽기에 대한 교육적 관심은 매우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읽기이해능력은 글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가는 인지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신종호 · 권희경, 2004). 읽기이해능력은 크게 단어인지(word recognition)와 독해로 이루어진다. 단어인지는 독해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문자에 대한 해독(decoding)을 말하며, 텍스트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이고 내용에 대한 기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독해를 위해서 필수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보다 고차적인 이해활동을 의미하는 독해는 입력된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하여 동시에 여러 차원의 지식이 활동하는 과정, 즉 텍스트 관련 변인과 독자 관련 변인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이일화, 2005). 따라서 궁극적인 읽기 교육의 목표는 단순한 문자의 해독만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텍스트의 이해

를 의미하는 독해활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읽기이해능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해독과 독해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유아가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독해수준을 측정하거나 더 나아가 수준 높은 독해력을 위한 관련요인들을 찾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유아기의 교육 목표가 읽기에 관심 가지기 차원에서 진술되고 있어 연구자들이 유아가 책을 혼자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지에까지 연구를 확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고, 유아기가 읽기 능력 면에서 개인차가 커서 아직까지 해독이 가능한 유아를 많이 찾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해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김선옥 · 조희숙, 2006; 이문정 · 김정화, 2007; 이차숙 · 김주아 · 남효선, 2008; 최은영 · 이지현, 2011)가 주를 이루었고, 이에 비해 독해활동에 대한 연구(김혜진, 2005; 이일화, 2005; 이일화 · 김동일, 2003; 이임숙 · 조증렬, 2003)는 읽기 저성취 아동과 일반 아동을 비교함으로써 독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초등학교 대상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유아기에 시작된 해독능력의 발달이 이후 초등학교 시기의 읽기이해능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드물었다. 따라서 유아기에 발달한 해독능력이 이후 초등학교 시기의 읽기이해능력과 어떤 관련

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는 종단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유아기 해독능력과 읽기이해능력과의 관계를 유추해보고 이후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읽기능력이라는 용어가 해독능력을 측정하는 경우나 독해능력을 측정하는 경우에서 모두 사용되어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 중 ‘읽기능력’은 문자를 읽을 수 있는 단순 해독능력을 의미하며 ‘읽기이해능력’은 글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인 독해능력을 의미함을 미리 밝혀둔다.

우선 읽기이해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읽기능력이 읽기이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일화와 김동일(2003)에 의하면 음독유창성, 즉 글을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읽는 능력은 읽기이해능력과 관련이 있다. 음독유창성이 뛰어난 아동은 글을 읽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는 자동화 상태가 되므로 글의 내용 이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Strickland와 Barnett(2003) 역시 유아기의 발생적 문해(emergent literacy)은 이후 유창한 읽기로 이어져 수준 높은 읽기이해능력이 요구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였다. Chall(1983)의 읽기이해능력 발달에 대한 단계이론에 따르면 읽기이해능력은 먼저 단어 인지 전 단계에서 시작하여, 문자 해독 단계를 거쳐, 해독 유창성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의미 파악을 위한 독해 단계를 거쳐,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취득하지만 정보 통합은 불가능한 독해 단계를 지나, 비로소 마지막 단계인 다양한 관점을 지닌 텍스트들을 통합·평가할 수 있는 통합적 독해 단계에 이르게 된다(이일화, 2005에서 재인용). 따라서 유아기에 읽기능력이 뛰어났던 유아들이 더 빨리 텍스트를 유창하게 읽을 수 있게 되

리라고 가정하면 이들이 이후 읽기이해능력에서도 우위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정을 입증해주고 있는 연구로 Leppänen, Aunola, Niemi와 Nurmi(200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4학년 아동의 독해력 등의 읽기이해능력을 예언해주는 변인을 찾기 위해 5, 6세 유아 158명을 대상으로 언어관련 능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유아기의 글자인식능력(letter knowledge)이 4학년 시기의 읽기이해능력을 예언해주는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으로 밝혀졌다. Stage, Sheppard, Davidson과 Browning(2001)의 연구에서도 유아기의 글자-이름, 글자-소리 대응 유창성이 초등학교에서의 읽기이해능력을 유의하게 예언해주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기의 읽기능력이 이후 초등학교 시기의 읽기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비록 종단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Klauda와 Guthrie(2008) 역시 5학년을 대상으로 읽기 유창성의 수준을 개별 단어단위, 구문단위, 전체 문장단위의 유창성으로 나누어 읽기이해능력과의 관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읽기 유창성 수준과 읽기이해능력 수준과의 상관성이 나타났다고 보고함으로써 읽기능력과 읽기이해능력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유아의 읽기능력이 이후 초등학교 시기의 읽기이해능력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던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한국과 일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읽기이해능력과 강한 연관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으로 어휘력을 들 수 있다. 어휘력은 그 자체가 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의 성격을 갖기도 하며, 어휘력이 있다는 것은 개인에게 그만큼 언어지능, 혹은 언어적 재능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므로 어휘력이 높은 유아가 읽기이해능력 면에서도 탁월성

을 나타낼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어떤 어휘들을 안다는 것은 결국 그 어휘들이 포함된 특정 분야나 내용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지식이 주어진 글의 이해를 돕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Anderson & Freebody, 1985; 김지영, 2009에서 재인용). Lervåg와 Aukrust(2010)는 읽기 능력과 어휘력 중 읽기이해능력을 더 잘 예언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본격적인 읽기 교육이 시작되고 나서 4개월 후인 평균 7년 6개월 연령의 모국어 사용 아동과 외국어 사용 아동을 대상으로 18개월 간격의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외국어 사용 아동 뿐 아니라 모국어 사용 아동의 경우에도 어휘력이 읽기이해능력의 가장 중요한 예언변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Snow(2002)는 어휘력과 읽기이해능력 간의 상관성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했다고 보고하면서 독해 지문의 내용수준이 높을수록 어휘력이 읽기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따라서 흔히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읽기능력이 읽기이해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많은 학자들 뿐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읽기이해능력에 읽기 능력과 어휘력이 갖는 의미가 어느 정도이며 어떤 것이 더 의미 있는 영향 요인인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이기숙, 김순환과 정종원(2010)의 연구에 대한 추적 연구로서 이전 연구에서 측정된 만 5세의 읽기 능력과 어휘력이 이후 이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한 후 측정한 읽기이해능력, 어휘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한국과 일본 유아의 연령, 성, 소득수준에 따른 읽기, 쓰기 능력을 비교한 바 있다. 그 결과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연구 결과가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한국과 일본 유아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읽기, 쓰기 능력점수가 높았고 남아보다 여아가 읽

기, 쓰기 능력점수가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읽기, 쓰기 능력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기숙 등(2010)의 연구에서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측정되었던 읽기 능력점수와 어휘력 점수가 이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하여 1학년이 된 시점에서 측정된 읽기이해능력 점수와 어휘력 점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이 1차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읽기이해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읽기능력이나 어휘력과 같은 언어관련 변인 외에 환경적 변인으로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부모 학력과 소득수준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소득수준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문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다수의 연구들에서 저소득 가정 자녀의 언어 능력이 낮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지만(김명순·박찬화, 2008; 윤영은, 2010; 이지연·곽금주, 2008; 최은영·이지현, 2011; 황현이, 2005), 고지혜(2006)의 연구를 제외하면 아동의 읽기이해능력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소득수준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1차 연구(이기숙 등, 2010)에서도 소득수준 상집단, 하집단 간에 읽기능력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었던 만큼, 유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후 초등학교 시기의 읽기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소득수준과 함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강력한 요인 중의 하나가 부모의 학력이다. Leppänen, Aunola, Niemi와 Nurmi(2008)의 연구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컸던 글자 인식능력 외에 아동의 성과 어머니의 학력이 읽기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과 아버지, 어머니의 학력이 읽기이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1차 연구(이기숙 등, 2010)에서 성별에 따른 해독능력의 차이가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 역시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에 성별에 따른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문해 능력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 연구(강정원·안지영, 2008; 김수희, 2003)들처럼 읽기이해능력이나 어휘력에서도 성차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지속적인 성차가 나타나는 경우 낮은 수행을 보이는 성별의 유아에게 별도의 관심이나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차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모든 연구문제에 대하여 서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바 있다. 따라서 양국 아동의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 발달이 또다시 유사한 양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만약 초등학교 시기에 측정된 읽기이해능력이나 어휘력에서 두 나라에서 각기 다른 영향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발견된다면 1년 전 양국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인이 그러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보다 읽기능력과 어휘력, 그리고 읽기이해능력 간의 관계에 대한 근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단연구를 통해서 만 5세 시기의 읽기능력과 어휘력이 이후 초등학교 1학년의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을 유아배경변인의 영향과 함께 고찰함에 있어 두 나라의 결과를 동시에 검토함으로써 양국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비록 한국과 일본의 결과를 통계적으로 직접 비교하는 것은 연구문제의 성격 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국의 결과를 따로 기술하지만, 각각

의 결과를 병렬하여 기술하면서 두 나라의 특성을 고찰해봄으로써 연구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결과 도출과 해석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만 5세 읽기점수, 어휘점수와 유아의 성, 소득수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읽기이해능력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만 5세 읽기점수, 어휘점수와 유아의 성, 소득수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어휘점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이기숙 등(2010)의 종단연구로서 당시 연구대상이었던 만 5세 유아 578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하여 1학년을 마무리하는 2학기 말에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연구 당시 연구대상 만 5세 유아는 여아 286명, 남아 292명으로 총 578명이었으나 이어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이유로 누락된 인원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여아 164명, 남아 164명으로 총 328명이었다.

일본의 경우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여아 114명, 남아 101명으로 총 215명이었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 중 읽기점수와

그림어휘력 검사는 1차 연구에서 실시되었고 읽기이해능력 검사와 어휘검사는 추적 조사 형태로 이번 연구에서 실시되었다.

1) 읽기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읽기검사 도구는 유아가 문자를 해독하여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의 히라가나는 음절문자로 히라가나를 읽을 수 있으면 문장을 읽을 수 있지만 한국의 한글은 음소문자이나 음절단위로 표기되는 특성상 유아가 음소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문장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음소의 다양한 결합으로 파생되는 수많은 음절들을 모두 읽을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는 음소의 결합방식이 다양한 음절로 이루어진 2음절 단어와 문장을 읽을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읽기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국과 일본 유아교육전문가와 초등언어교육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측정도구를 선정하고 수정하였다. 검사 항목은 최나야(2007)가 개발한 단어 읽기 능력 측정도구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기초학습기능검사(박경숙·윤점룡·박효정, 1989)중 읽기검사 다형을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읽기검사는 2음절 단어 20문항과 2음절의 문장 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단어 20문항은 2음절을 모두 읽으면 2점, 1음절만 읽으면 1점, 모두 읽지 못하면 0점으로 20단어를 모두 읽으면 총점 40점이 된다. 문장 3문항은 문장을 완전하게 읽으면 2점, 일부만 읽을 수 있으면 1점, 전혀 읽지 못하면 0점으로 채점하여 총점은 6점이 된다. 따라서 한국의 읽기검사에서 총점은 단어 읽기 총점 40점과 문장 읽기 총점 6점을 합한 46점이며 본 도구의 내적일치도는 .99이었다.

일본에서 사용한 읽기검사는 히라가나 청음

46글자, 탁음·반탁음 25글자, 단어 5개, 문장 4개였다. 히라가나 총 71글자는 읽을 수 있으면 1점, 읽을 수 없으면 0점으로 채점하였으며 단어와 문장은 완전하게 읽으면 2점, 일부만 읽을 수 있으면 1점, 읽지 못하면 0점으로 채점하게 되어 히라가나의 읽기 총점은 71점, 단어는 10점, 문장은 8점으로 읽기검사 총점은 89점이며 내적일치도는 .92이었다.

2) 그림어휘력 검사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그림어휘력 검사를 사용하였다. 한국의 경우 Dunn과 Dunn(1981)의 Peabody Literacy Environment Index(PPVT-R)의 문항을 기초로 김영태, 장혜성, 임선숙, 백현정(1995)이 표준화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제시단어에 해당하는 그림을 보기 그림 4가지 중 고르는 ‘수용어휘’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2세에서 8세 아동용 개별검사이다. 총 112 문항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

3) 읽기이해능력 검사

읽기이해능력 검사는 만 5세였던 1차 연구대상자가 초등학교 1학년말이 되었을 때 실시한 것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東洋(1995)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内田伸子(2008)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수정한 도구는 오차노미즈 대학교 부속 초등학교 국어과 교사가 내용을 검토한 후 1학년 1학급에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실시상의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읽기이해능력 검사와 일본의 국어학력검사와의 상관계수는 0.8이었다. 읽기이해능력 검사는 같은 유목 단어 찾기, 문장 속에서 틀린 글자 찾기, 맞는 글자 찾기, 논리이해력, 독해력의 총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문항 수는 23개이며 같

은 유목 단어 찾기 4문항, 틀린 글자 찾기 6문항, 맞는 글자 찾기 5문항의 경우 각 1점씩을 부여하였다. 논리이해력의 경우 총 6문항으로서 논리적 추론능력을 측정하는 1문항과 시간적,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적절한 접속사를 찾는 4문항을 합한 객관식 5문항의 경우 각 1점씩을 부여하고, 지문의 내용을 파악해 주제에 맞는 제목을 붙이는 주관식 1문항에 대하여는 2점을 부여하여 총점이 7점이 된다.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와 이야기의 시간적 흐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독해력 문항의 경우 6문항으로 객관식 2문항에 대해서는 각 1점씩, 주관식 4문항에 대해서는 13점을 부여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배점은 하위영역별 총점이 다르므로 하위영역에 대한 점수를 표준점으로 환산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읽기이해능력 검사의 내적일치도는 .64로 나타났다.

4) 어휘검사

한국과 일본 모두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측정된 어휘검사는 일본의 芝(1976)가 개발하여 표준화한 어휘력 검사 도구로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까지 발달 연령에 따라 A1판-U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용인 A1판을 사용하였다. 어휘검사는 그림 어휘 검사, 동의어 찾기, 반의어 찾기의 총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기 그림 5개 중에서 제시어휘에 해당하는 그림을 찾는 그림 어휘 검사 10문항, 제시어휘와 동의어 찾기 16문항, 반의어 찾기 8문항으로 총 34문항이며 각 문항은 정답을 1점으로 처리해 점수 범위는 0점부터 34점이다. 본 검사의 내적일치도는 .65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연구대상 유아가 만 5세 시기에 1

차 검사를 실시하고 1년 후 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을 마무리할 시기에 2차 검사를 실시하는 종단적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 8월, 인천시에 있는 A 유치원에서 10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1차 검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설문 응답 시 어려움이 있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문항을 확인한 후 표현을 수정하였으며, 유아교육전문가 3인의 검토를 통해 문항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증 받았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578명에 대해 읽기검사와 그림 어휘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2008년 5월부터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한국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8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하였다.

이후 실시된 2차 검사는 1차 검사 1년 후인 2009년 10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진행되었다. 먼저 1차 연구 대상자 만 5세 유아 중 어머니로부터 연구 동의를 받은 가정을 연구보조자들이 방문하여 읽기이해능력 검사와 어휘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시간은 읽기이해능력 검사 15분, 어휘검사 10분 이내로 연구대상 아동들이 집중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일본의 경우도 200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동일한 과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win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만 5세 시기의 읽기점수와 그림 어휘력 검사 점수, 아동의 성별, 소득수준, 아버지·어머니의 학력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읽기이해능력 점수와 어휘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

〈표 1〉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한국)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4004.964	4	1001.241	32.040	.000
잔차	9968.517	319	31.249		
합계	13973.481	323			

$R^2(\text{adj. } R^2)=.287(.278)$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분석

1. 읽기이해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경우, 읽기이해능력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의 분산분석표는 표 1과 같다.

읽기점수,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 성별, 소득수준, 아버지·어머니 학력의 6개의 독립변수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읽기이해능력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소득수준과 아버지 학력은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그 외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 읽기점수, 성별, 어머니 학력이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32.040,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읽기이해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읽기이해능력 총변화량의 28.7%(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27.8%)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읽기이해능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t=5.789, p=.000$), 읽기점수($t = 5.340, p = .000$), 성별($t = 3.498, p = .001$), 어머니 학력($t = 3.231, p = .001$)이며,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 읽기점수, 성별, 어머니 학력의 순으로 읽기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읽기이해능력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의 분산분석표는 표 3과 같다.

읽기점수,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 성별, 소득수준, 아버지·어머니 학력의 6개의 독립변수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읽기이해능력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소득수준, 어머니 학력, 읽기점수는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그 외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 성별, 아버지 학력이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16.141,

〈표 2〉 읽기이해능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한국)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그림어휘력 검사점수	.164	.028	.292	5.789	.000
읽기점수	.261	.049	.261	5.340	.000
성별	2.178	.623	.166	3.498	.001
어머니 학력	.507	.157	.161	3.231	.001
(상수)	13.974	3.262		4.285	.000

〈표 3〉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일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2331.012	3	777.004	16.141	.000
잔차	8472.173	176	48.137		
합계	10803.185	179			
$R^2(\text{adj. } R^2)=.216(.202)$					

〈표 4〉 읽기이해능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일본)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	.272	.054	.355	5.019	.000
성별	4.587	1.062	.296	4.319	.000
아버지 학력	.770	.355	.150	2.169	.031
(상수)	24.388	5.786		4.215	.000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읽기이해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읽기이해능력 총변화량의 21.6%(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20.2%)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읽기이해능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그림어휘력 검사($t = 5.019, p = .000$), 성별($t = 4.319, p = .000$), 아버지 학력($t = 2.169, p = .031$)이며,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그림어휘력 검사, 성별, 아버지 학력 순으로 읽기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경우, 어휘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의 분산분석표는 표 5와 같다.

읽기점수,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 성별, 소득수준, 아버지·어머니 학력의 6개의 독립변수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어휘력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성별, 소득수준, 어머니 학력이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그 외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 읽기점수, 아버지 학력이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47.446,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어휘력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어휘력 총변화량의 30.8%(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30.1%)가

〈표 5〉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한국)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9808.618	3	3269.539	47.446	.000
잔차	22051.453	320	68.911		
합계	31860.072	323			
$R^2(\text{adj. } R^2)=.308(.301)$					

〈표 6〉 어휘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한국)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	.374	.042	.440	8.862	.000
읽기점수	.292	.072	.193	4.030	.000
아버지 학력	.461	.226	.099	2.034	.043
(상수)	-1.126	4.732		-2.38	.812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어휘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t = 8.862, p = .000$), 읽기 점수($t = 4.030, p = .000$), 아버지 학력($t = 2.034, p = .043$)이며,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 읽기 점수, 아버지 학력의 순으로 어휘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어휘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의 분산분석표는 표 7과 같다.

읽기점수,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 성별, 소득수준, 아버지·어머니 학력의 6개의 독립변수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어휘력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소득수준,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은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그 외 그림어휘력 검사, 성별, 읽기점수가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14.775,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어휘력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어휘력 총변화량의

21.6%(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20.2%)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어휘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t = 5.246, p = .000$), 성별($t = 2.944, p = .004$), 읽기점수($t = 2.519, p = .013$)이며,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 성별, 읽기점수의 순으로 어휘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5세 시기의 언어 관련 변인, 즉 읽기능력을 측정한 읽기점수와 어휘력을 측정한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 그리고 유아 개인 변인인 성별과 환경 변인인 소득수준,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읽기 이해능력과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표 7〉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일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3279.431	3	1093.144	14.775	.000
잔차	13021.277	176	73.985		
합계	16300.708	179			

$R^2(\text{adj. } R^2) = .216(.202)$

〈표 8〉 어휘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일본)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	.346	.066	.367	5.246	.000
성별	3.954	1.343	.208	2.944	.004
읽기점수	.181	.072	.174	2.519	.013
(상수)	20.313	5.392		3.767	.000

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 문제가 한국과 일본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각 연구문제에 따라 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 1학년의 읽기이해능력에 대한 만 5세 시기의 읽기점수,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 성별, 소득수준, 아버지·어머니 학력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그림어휘력 검사, 읽기 점수, 성별, 어머니 학력 순으로 읽기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네 가지 변인이 읽기이해능력을 28.7%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그림어휘력 검사, 성별, 아버지 학력 순으로 읽기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세 가지 변인이 읽기이해능력을 21.6%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교 1학년의 어휘력에 대한 만 5세 시기의 읽기점수,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 성별, 소득수준, 아버지·어머니 학력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 읽기 점수, 아버지 학력 순으로 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3가지 변인이 어휘력을 30.8%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 성별, 읽기점수 순으로 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3가지 변인이 어휘력을 21.6%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제시한 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논의하고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만 5세 시기의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로 나타나 유아기 어휘력이 이후 초등학교 시기의 어휘력 뿐 아니라 읽기이해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어휘력이 읽기이해능력에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 김동일, 이일화(2010), 김유미(2004), 이일화(2005), Droop과 Verhoeven(2004), Harlaar, Cutting, Deater-Deckard, DeThorne, Justice, Schatschneider, Thompson과 Petrill(2010), Ransby와 Swanson(2003)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 모두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가 읽기점수보다 이후 초등학교 시기의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읽기이해능력 및 어휘력에 있어서 만 5세 시기의 읽기능력보다 어휘력이 갖는 의미가 오히려 더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의 다른 하위기술들이 발달함에 따라 음운 인식 능력을 비롯한 문자 해독과 관련된 능력의 중요성이 점차 약해지고 지적한 Swanson과 Howell(2001)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유아기에는 문자 해독능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해독능력이 우수한 유아가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해

독능력이 부족한 유아보다 높을 수 있지만 일단 문자 해독능력이 완전해지고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이후인 초등학교 이후 시기에는 해독 능력보다 어휘력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Sinatra와 Royer (1993), Snow(2002)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읽기 이해능력에서 어휘력의 비중이 높아짐을 강조한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렇다면 상당수 유아기 부모들이 조기에 자녀의 해독능력을 기르는 데에 그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물론 여전히 유아기의 해독능력이 읽기이해능력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아동기의 읽기이해능력 및 어휘력에 더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어휘력이 제시된 만큼 유아기 어휘력 신장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의 성별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초등학교 시기의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특히 1차 연구(이기숙 등, 2010) 결과, 만 3, 4세와 달리 만 5세에서는 읽기능력의 성차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 5세 유아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된 후에 한국은 읽기이해능력에서, 일본은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 모두에서 다시 성별에 따른 영향력이 발견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 크다. 만 5세 시기에 측정된 읽기능력은 글자인식능력, 즉 해독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만 5세 측정 시 이미 상당수의 유아가 모든 문항을 거의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천장효과(ceiling effect)가 나타나서 성차가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에 와서 측정된 읽기이해능력 검사는 글을 읽을 수 있는지를 묻는 단순한 해독능력 측정 문항이 아니라 글을 읽고서 내용을 이해

하고 논리적·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고차원적인 읽기이해능력인 독해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성별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추가적으로 *t*검증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한국의 읽기이해능력(여아 $M = 51.27$, 남아 $M = 48.73$, $t = -3.509$, $p < .001$)과 일본의 읽기이해능력(여아 $M = 54.51$, 남아 $M = 50.93$, $t = -3.427$, $p < .001$), 어휘력(여아 $M = 39.31$, 남아 $M = 35.59$, $t = -2.077$, $p < .05$)에서 모두 여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어휘력(여아 $M = 51.04$, 남아 $M = 48.96$, $t = -1.8$, $p = .06$)에서도 역시 여아가 우세하기는 하였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아기 초기에 나타난 남아의 뒤짐 현상이 다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읽기이해능력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이다. 김지영과 윤진주(2008)에 의하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문해 신념이나 문해 태도, 가정의 문해 환경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기 초기의 읽기능력과 학령기 초기의 읽기이해능력, 어휘력에서 여아가 우세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능력에 대한 여아의 타고난 우위를 가정해볼 수 있게 하며, 따라서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에 이르기까지 남아에 대한 보다 세심한 교육적 중재나 배려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가정의 소득수준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초등학교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에 더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진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기숙 등(2010)의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읽기점수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의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에 소득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양국 모두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이해능력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고지혜(2006)의 연구에서 저소득 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유아보다 독해력에서 유의미한 낮은 점수를 받은 것보다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서 소득수준과 부모 학력의 영향을 함께 살펴본 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두 가지 요인 모두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이 둘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에 두 가지 중 더 강력한 요인이었던 부모 학력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뽑혀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모 학력과 가정의 소득수준이 모두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유의한 지표가 되지만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동의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는 부모 학력이 더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읽기이해능력에서 어머니의 학력의 중요성을 밝힌 Leppänen, Aunola, Niemi와 Nurmi(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김정화와 이문정(2006)에 의하면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자녀의 읽기, 쓰기, 전반적인 문해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언어 발달 및 교육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서로 다른 신념이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환경구성으로 나타남으로써 부모 학력에 따른 자녀 읽기능력에서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읽기이해능력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어휘력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영향을 미쳤고 일본의 경우 읽기이해능력에서 아버지의 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국 모두 아버지 학력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을 통해 과거 연구들에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아버지보다 더 강조하여 왔던 것에 대한 재고가 필

요하며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아버지 양육 참여에 관한 연구들이 당위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아버지, 어머니 학력 수준이 낮은 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아동 성별과 부모 학력에 따른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의 뒤짐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유아기부터 동화책을 활용한 좋은 부모-자녀 상호작용 모델을 체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을 신장시키는 방안으로 직접적인 교수활동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유아기의 어휘력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만큼 성별이나 부모 학력이 낮음으로 오는 영향을 차단하고 유아기 어휘력 신장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책읽기 활동을 제안한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어휘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만 5세 시기의 읽기점수가 포함된 것에 일부 기인한다. 만 5세 시기에 읽기점수가 높았던 유아 이후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어휘력이 더 높다는 것은 원활한 해독능력으로 인하여 유아기부터 많은 도서자료에 접해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에서 어휘력이 높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많은 책을 읽고 책읽기 상호작용에 부모가 적극 참여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초등학교 진학 후에 이루어지는 보다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읽기이해활동에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타나리라고 본다. 다수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부모, 자녀 상호작용이나 가정문해환경을 통한 간접 영향일 수밖에 없다(김미정, 2005; 홍은아, 2003; 홍인숙, 2001). 따라서 부모로 인해 발생한

뒤집 현상을 그 원인이 된 부모를 변화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아동의 문해 발달을 위한 개입에서 가정문해환경을 변화시키거나 가정문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모를 자녀의 문해발달을 위한 상호작용자로 교육시켜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Purcell-Gates, 1996; Saint-Laurent, & Giasson, 2005). 저소득 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신혜영, 2007)를 살펴보다라도 저소득 가정 유아의 어휘력은 책읽기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감정이 풍부하고 가정의 문해 자원이 많을수록, 그리고 아동용 책 소장 권수와 부모와 함께 책 읽는 횟수가 많을수록 높았다. 아동 성차에 대한 중재방안으로서의 적합성도 책읽기나 동화짓기 및 관련활동이 남녀의 구분이 없이 읽기 능력을 유의하게 증진시킨다는 연구결과(심성경 · 김경의 · 김나림, 2000; 오명미, 2002)가 이를 뒷받침한다. Coyne, Simmons, Kame'enui와 Stoolmiller(2004), Dowhower(1987), Fisher, Frey와 Lapp(2008), Kesler(2010), McKeown과 Beck(2006)도 반복적인 책 읽기를 통해서 아동의 어휘와 독해력에 의미 있는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이나 초등학교, 혹은 지역도서관 등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책을 읽어줄 것과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을 비롯하여 책 읽어주는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중재로 인해 일어난 가정문해환경 및 부모-자녀 책읽기 상호작용에서의 변화가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에 갖는 효과를 추후 종단적으로 연구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제안한다.

본 연구는 만 5세 시기의 읽기능력과 어휘력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 연구를 통해 밝힌 것과 특히 유아기의 어휘력이 학령기 초기의 읽기

이해능력과 어휘력에 갖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유아기 어휘력이 갖는 중요성을 입증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추적 연구라는 연구 실시 상의 어려움에도 한국 자료로만 300명이 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점에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읽기능력, 즉 해독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음운인식, 자모음 지식, 음운 처리 능력 등의 초기 문해 기술과 읽기이해능력과의 관련성까지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물론 이들 초기 문해 기술이 읽기능력에 영향을 주고 다시 읽기능력이 읽기이해능력에 영향을 주는 모형을 가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종단적 영향력을 입증함으로써 유아의 읽기 발달을 보다 폭넓고 분명하게 규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가정문해환경이나 책읽기 빈도, 부모-자녀 책읽기 상호작용 등의 배경변인과 보다 많은 문해 관련 변인을 투입한 읽기이해능력에 관한 종단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강정원 · 안지영(2008). 유아의 쓰기발달과 이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가정에서의 쓰기도 현황. **유아교육학논집**, 12(4), 5-24.
- 고지혜(2006).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아동의 읽기 오류 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동일 · 이일화(2010). 읽기 저성취 초등학생의 언어 지식과 독해력과의 관계. **학습장애연구**, 7(1), 27-45.
- 김명순 · 박찬화(2008).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부진아를 위한 읽기중재프로그램의 효과. **아동학회지**, 29(5), 301-319.

- 김미정(2005). 책 읽어주기를 통한 어머니-유아의 상호작용 유형과 유아의 탈상황적 언어사용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옥·조희숙(2006). 유아의 읽기에 대한 음운처리 과정, 글자지식 및 언어능력의 영향력 분석. **유아교육연구**, 26(1), 123-147.
- 김수희(2003). 아동의 읽기 유창성과 가정 문해 환경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태·장혜성·임선숙·백현정(1995). **그림어휘력 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유미(2004). 읽기 부진의 양상과 지도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화·이문정(2006). 유아의 문식성 습득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신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237-251.
- 김지영(2009). 어휘지도가 독해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영·윤진주(2008). 유아의 문식성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 태도와 가정의 문식성 환경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17(1), 119-129.
- 김형엽·이형구·김현진(2002). **언어, 그 신비로운 세계**. 서울: 경진문화사.
- 김혜진(2005).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읽기동기와 읽기이해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경숙·윤점룡·박효정(1989). **기초학습기능검사**. 한국교육개발원.
- 신종호·권희경(2004). 읽기이해과정을 구성하는 하위인지능력에 대한 개인차 연구. **교육심리연구**, 18(1), 197-218.
- 신혜영(2007). 저소득 가정 부모의 문해 발달 태도 및 가정 문해 활동과 유아의 어휘력, 인쇄물 개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성경·김경의·김나림(2000). 도서대여프로그램이 유아의 읽기능력 및 읽기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0(1), 81-100.
- 오명미(2002). 동화짓기 및 관련활동이 유아의 읽기능력 및 읽기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영은(2010). 저소득 가정 유아와 일반 가정 유아의 언어능력 및 가정문해환경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기숙·김순환·정종원(2010). 한국과 일본 만 3, 4, 5세 유아의 연령, 성, 소득수준에 따른 읽기, 쓰기 능력. **육아지원연구**, 5(2), 211-240.
- 이문정·김정화(2007). 어머니의 읽기 지도방법 및 문해 습득에 대한 신념이 유아의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1), 199-224.
- 이일화(2005). 읽기 저성취 초등학교 학생의 언어 지식과 독해력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일화·김동일(2003). 읽기 유창성과 독해력 수준과의 관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7(4), 1-24.
- 이임숙·조증렬(2003). 초등학교 학생의 읽기와 인지·언어적 변인들과의 인과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211-225.
- 이지연·곽금주(2008).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51-165.
- 이차숙·김주아·남효선(2008). 유아의 음운 인식과 단어읽기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8(5), 5-26.
- 최나야(2007). 자모 지식, 음운론적 인식 및 처리능력이 유아의 한글 단어 읽기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은영·이지현(2011). 연령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유아의 초기 문해 기술. **유아교육연구**, 31(1), 61-85.
- 홍은아(2003).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부모의 아동의 문해발달에 대한 총체적 언어신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인숙(2001). 총체적 언어접근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가정의 문해환경: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현이(2005). 가정의 소득 수준과 아동의 언어능력 및 가정문해환경.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청구논문.
- 內田伸子・浜野 隆・後藤憲子(2008). 幼児のリテラシー習得に及ぼす社會文化的要因の影響. お茶の水女子大學.
- 東洋・內田伸子(1995). 幼児期における文字の獲得過程とその環境的要因の影響 に関する研究. 平成4~6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總合研究A) 研究報告書.
- 芝(1976) 語彙理解尺度作成の試. **東京大學教育學部紀要**, 17, 47-58.
- Coyne, M. D., Simmons, D. C., Kame'enui, E. J., & Stoolmiller, M. (2004). Teaching vocabulary during shared storybook readings : An examination of differential effects. *Exceptionality*, 12(3), 145-162.
- Dowhower, S. L. (1987). Effects of repeated reading on second-grade transitional readers' fluency and comprehension. *Reading Research Quarterly*, 22(4), 389-406.
- Droop, M., & Verhoeven, L. (2003). Language proficiency and reading ability in first- and second-language learners. *Reading Research Quarterly*, 38(1), 78-103.
- Dunn, L. M., & Dunn, L. M. (1981).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Revised*. NM : American Guidance Service.
- Fisher, D., Frey, N., & Lapp. D. (2008). Shared readings : Modeling comprehension, vocabulary, text structures, and text features for older readers. *The Reading Teacher*, 61(7), 548-556.
- Harlaar, N., Cutting, L., Deater-Deckard, K., DeThorne, L. S., Justice, L. M., Schatschneider, C., Thompson, L. A., & Petrill, S. A. (2010). Predict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ding comprehension : a twin study. *Annal of Dyslexia*, 60, 265-288.
- Kesler, T. (2010). Shared reading to build vocabulary and comprehension. *The Reading Teacher*, 64(4), 272-277.
- Klauda, S. L., & Guthrie, J. T. (2008). Relationships of three components of reading fluency to reading comprehens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0(2), 310-321.
- Leppänen, L., Aunola, K., Niemi, P., & Nurmi, Jari-Erik. (2008). Letter Knowledge predicts Grade 4 reading fluency and reading comprehension. *Learning and Instruction*, 18(6), 548-564.
- Lervåg, A., & Aukrust, V. G. (2010). Vocabulary knowledge is a critical determinant of the difference in reading comprehension growth between first and second language learne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5), 612-620.
- McKeown, M. G., & Beck, I. L. (2006). Encouraging young children's language interactions with stories. In D. K. Dickinson & S. B. Neuman (Eds.), *Handbook of early literacy research* (Vol. 2, pp. 281-294). New York : Guilford.
- Purcell-Gates, V. (1996). Stories, Coupons, and the TV Guide : Relationship between Home Literacy Experiences and Emergent Literacy Knowledge. *Reading Research Quarterly*, 31(4), 406-428.
- Ransby, M. J., & Swanson, H. L. (2003). Reading comprehension skills of young adults with childhood diagnoses of dyslexia.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6(6), 538-555.
- Saint-Laurent, L., & Giasson, J. (2005). Effects on a family literacy program adapting parental intervention to first graders' evolution of reading and writing abilities. *Journal of Early Childhood Literacy*. 5(3), 253-278.
- Sinatra, G. M., & Royer, J. M. (1993). Development of cognitive component processing skills that support skilled read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5(3), 509-519.
- Snow, C. E. (2002). *Reading for understanding : Toward an R&D program in reading comprehension*. Santa Monica, CA : RAND.
- Stage, S. A., Sheppard, J., Davidson, M, M, Browning, M. M. (2001). Prediction of first-graders' growth

in oral reading fluency using kindergarten letter fluency.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9*(3), 225-237.

Strickland, D. S., & Barnett, W. S. (2003). Literacy interventions for preschool children considered at risk : Implications for curriculum,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parent involvement. *Yearbook-*

National Reading Conference, 52(1), 104-116.

Swanson, H. L., & Howell, M. (2001). Working memory, short-term memory and speech rate as predictors of children's reading performance at different ag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4), 720-734.

2011년 8월 31일 투고, 2011년 11월 7일 수정
2011년 11월 9일 채택